

친척언니 희롱 항의하자
의경이 여고생 폭행

84.5.2
1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강남
구 대치동 998 강남경찰서 옆 버
스정류장에서 강남경찰서 수사계
소속 임상완(21) 의경이 버스를
기다리던 김수진(18·경성여고 입
학생)양의 머리채를 잡아 경찰서
담벼락에 짓뭉어 김양의 이마가

2cm가량 찢어지는 등 전치 3주
의 부상을 입혔다.

김양의 친척언니 한승희(28·회
사원·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
단지 551-1501)씨에 따르면 김양
과 함께 집에 가기 위해 정류장
에서 차를 기다리던 중 사복을
한 임 의경이 한씨를 희롱해 김
양이 말리자 임 의경이 갑자기
이같은 폭행을 저질러 김양을 실
신시켰다는 것이다.